

눈 내리는 밤, 금서를 읽는 즐거움

서적의 수난, 분서와 지하출판

이광주

인제대 명예교수 · 서양사

9·28 서울 수복 뒤 필자가 적을 둔 K대학에서는 개강과 동시에 흠어져 없어진 도서관 장서들을 수집하는 일에 학생들을 동원했다. 삼삼오오, 캠퍼스 주변의 집들을 찾아 사정 이야기를 하곤 책들을 몇권씩 돌려받았다. 그 작업은 2~3일 계속된 것 같다. 돌려받은 책은 모두 영·독의 양서(洋書)였다. 그 장서의 산일(散逸)은 학교를 점거한 인민군의 계획된 소행이었을까, 아니면 병졸들의 무지에서였을까.

어느 영국의 서지학자는 '서적의 적'으로 곤충·불·물·가스·열·먼지·무관심·무지와 더불어 인간을 들고 있다. 서적은 인간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 인간이야말로 서적 최대의 적이 아니었던가. 분서(焚書)에 이르기까지 온갖 박해로 점철된 서적의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인상을 깊이 갖게 한다.

'분서'의 인과응보

많은 경우 저자와 발행인 그리고 독자까지도 반려자로 삼은 분서. '분서'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건은 진시황제의 '분서갱유'(B.C. 213)와 1933년 나치스가 대학가에서 행한 밤의 분서 '죽제'다.

"사관(史官)은 진의 연대기 이외 모든 서적을 불사르라"는 호령에 의해 《시경》, 《서경》, 제자백가의 서적이 소각되고 '요사스러운 언어로 민심을 교란한' 460여 유학자가 매몰사당하였다.

그로부터 2천년도 훨씬 지난 뒤 '반독일적인 정신에 항거하여' 행해진 독일대학의 분서 축제에서 베를린대학 광장에서만 약 2만권이, '칼 마르크스를 불사르라!',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불사르라!'는 외침과 함께 화염 속에 던져졌다. 인과응보. 서적의 복수에서였던가, '만세(萬歲)에 전하고자' 한 진은 2세도 못채워 멸망하고 '천년왕국'을 꿈꾸던 히틀러의 제3제국 또한 12년의 단명으로 초연 속에 사라졌다.

'문자와 지식은 하나님의 것'

종교적 도그마는 때때로 광기(狂氣)를



·프랑스에서 금서 처분된 책을 네덜란드에서 팔고 있다(1715년)(왼쪽). ·커튼 뒤 금서가 엿보이는 서점풍경(1781년).



부리니 서적 박해는 종파간에 가장 치열했다. 마호메트교는 그리스도교 서적을 불사르는 명분을 다음과 같이 내세웠다.

"만약 그 서적이 코란에 있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들이다. 만약 코란의 가르침과 상반된 것이 기술되었다면 그것은 부덕(不德)하며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간의 이단박멸을 반영하여 서적 추방운동이 마녀사냥처럼 오래도록 전개되었다. 11세기 교황권 전성기에 있어 교회의 허기를 받지 않는 서적은 신성 모독으로 소각되어야 하였다. 서적 검열의 총본산은 파리대학의 신학부, 즉 소르본이었다. 시대를 거슬러올라, 코스모폴리탄적이던 고대 로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원로원의 주요 과제는 유태계의 서적에 관한 심의로서, 시민들은 시 중심의 포럼(광장)에서 진행되는 분서 행사를 일상적으로 즐겼다.

'문자와 지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스킨러주의적 관념을 고수하여 교권은 16세기 이후에도 서적과 문필가 위에 무겁게 군림하였다. 서적 탄압이 가장 격심하였던 종교개혁 시대에 수도원 장서들이 겪은 무참한 운명을 목격한 영국의 한 종교가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 미신적 저택(수도원을 말함)을 접수한 많은 사람들은 서고의 장서를 뒷간에서

쓰기 위해 혹은 촛대를 닦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 일부를 건물상이나 비누상에 재료로 팔고 혹은 해외의 제본소에 팔아넘겼다……"

도서관이나 문고에 대한 방화와 약탈은 신앙의 이름 아래 집단적으로 자행되고 호화본의 금은보석을 떼어낸 뒤 소각하거나 길가 시궁창에 버린 무수한 옛 사본들, 성서와 전례서(典禮書) 이외의 모든 서적, 그리고 성서까지도 금기였던 종교개혁의 동란시대는 역사상 최대의 서적 수난기였다.

빅토르 위고의 《노트르담의 꼽추》에는 서적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세대를 노트르담 사제들이 세상의 종말로서 경악해 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면 구텐베르크 이후 서적은 과연 자유로이 만들어지고 읽을 수 있었을까.

양시앵레짐하의 지하출판

혁명은 서적 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기존 체제는 일찍부터 감시의 눈을 서적과 서적이 있는 공간에 집중한다. 1757년, (이 시기는 아무도 혁명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금서의 저자 및 발행인을 사형으로 규정. 67년, 종교문제에 관한 저술의 일체 금지. 74년, 모든 서적 인쇄는 사전·사후에 인가받을 것. 81년, 사망자의 서적은 허가 없이도 매도 금지. 83년, 서적의 포장과 발송의 점검은 반드시 파리에서 행한다.

"눈 내리는 밤에 문을 잠그고 금서를 읽는다." 중국 옛 사대부의 즐거움의 하나를 표현한 말이다. 그것은 또한 오랜 암흑의 시대 이 땅의 지식인들도 체험한 불행한 즐거움이었다.

이렇듯 혁명 전 30년간의 잇따른 검열 메카니즘 강화는 프랑스 봉건세력의 날로 심화된 위기감을 잘 드러낸다고 할까.

불법 서적의 적발에는 '파리'라 불린 스파이들이 암약했다. 그들은 거리·시장·카페·선술집·무도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파리메처럼 냄새를 맡고 다녔다. 금서를 적발한 밀고자에게는 고액의 상금이 주어졌다. 많은 문필가와 발행인이 투옥되고 혹은 국외로 탈출하였다.

그러나 적지 않은 출판사들이 금서 간행을 지속하기 위해 국경 넘어 스위스·런던·암스테르담·주네브 및 독일 여러 도시에 출판 공방을 차렸다.

그곳에서 제작된 '지하 출판물'은 선박이나 밀수업자 혹은 마차를 통해 프랑스 내에 밀반입되고 서점의 지붕 밑에

숨겨졌다가 행상 혹은 순회 판매원에 의해 '망토 밑에서' 거래되었다. 갖은 우여곡절 끝에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금서는 당연히 값비싼 귀중본이 되고 터부의 유혹까지 곁들여 더욱 인기를 끌었고,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을 찾는 것이 '풍속' 처럼 되었다. 그런데 그 출판 공방에는 자기를 '철학자'라고 소개하며 원고를 보내오는 무명의 문사들의 투고가 그치지 않았다.

R. 단턴의 <한 경찰 보안관의 파일 - 문예공화국의 해부>에 의하면 데드리라고 하는 파리의 한 경찰관은 501인의 문필가를 감시했다고 한다. 그들 중에는 볼테르·루소·올바크·모렐리·달랑베르·디드로와 같은 엘리트 지식인이 있는가 하면 많은 무명의 문사들도 있다.

전자는 볼테르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개가 국왕 임명의 한직(閑職)과 연금의 수혜자였는데, 이들은 살롱의 단골로 상류사회의 생활을 즐겼다. 그들 최대의 바람은 아카데미 프랑세즈에 자신의 자리를 얻는 것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세기의 정신적 메신저임이 틀림없으나 '취미'와 동일시된 그들의 '철학'은 (루소는 예외로) 민중을 멀리하였다.

체제에 대해 이의(異議)를 제기한 것은 볼테르나 루소의 글에 감동하여 지방에서 올라와선 지붕 밑에서 살며 부지런히 글을 쓰는, 볼테르가 말한 이른바 '천한 문사들'이었다. 출신과 재능의 부족으로 인해 특권 지식인의 길드에 필경까지 못하였던 그들은 비방 문서나 시사 소책자, 포르노와 캐리커처물의 집필가가 되었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들의 글도 '철학서'라고 불리며 많은 독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위기적 전환의 시대는 '검은 소문'이 난무하고, 스캔들을 요구하는 시대다. 루소는 그 시대의 백과전서적인 지적 관심은 필경 정치적인 것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당시 모든 장르의 서적은 반권위적, 반종교적, 반양속적(反良俗的)인 스타일, 다시 말해 비판과 비판의 틀을 벗어나 폭로와 비방의 색깔을 짙게 드러내었다.

비판과 웃음거리의 대상은 특히 왕과 왕비 그리고 고위 성직자였다. 왕은 폭을 포식하는 그로테스크한 인간(돼지)으로,

그리고 왕비는 언제나 호사방자하고 음탕한 여인으로 그려졌다.

데드리 보안관은 요주의 문필가들을 '선한 인물', '악한 인물', '극히 악한 인물', '수상한 인물', '수상하지 않은 인물'로 구별했는데, 특히 왕과 왕족을 비방하는 자와 무신론자를 '극히 악한 인물'로 낙인 찍었다. 볼테르를 '극히 악한 인물'로 낙인 찍은 것은 아마도 그의 무신론적 언행 때문이었을 것이다. 데드리는 문필가들의 문체에까지 주의를 기울였으나 이데올로기에 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무관심은 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귀족과 엘리트 철학자들의 오랜 우정어린 교류나 또 법무대신 말레르브의 <백과전서>에 대한 비호(그는 그 원고를 자택에 숨겨 주었다)에서 잘 드러나듯이 금서를 둘러싼 귀족들의 적극적인 보호는 철학자들의 비이데올로기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비이데올로기성은 서툰 철학자들도 공유하였다. 빵을 위해 쓰기 시작한 '지체 높은 분들'에 대한 희문(戲文)에는 그들의 원한도 깃들어 있어 어느새 시류를 타고 민중의 잠재된 원한을 눈 뜨게 하였다. 그들은 여론 형성자가 되고 1789년의 길을 앞지르게 되었다.

금서를 읽는 밤의 즐거움

1789년의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사상 및 의견의 자유로운 전달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임'을 구가한다. 문자와 서적의 오랜 고난의 싸움은 이제 끝나는 걸까.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은 1928년 발표된 이래 '외설이나, 예술이나'의 사회적인 물의와 법적인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이 영국에서 삭제 없이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펠릭스부스가 거듭된 재판에 승소한 1960년, 즉 책이 나온 지 32년만의 일이었다.

"눈 내리는 밤에 문을 잠그고 금서를 읽는다." 중국 옛 사대부의 즐거움의 하나를 표현한 말이다. 그것은 또한 오랜 암흑의 시대 이땅의 지식인들도 체험한 불행한 즐거움이었다. ❖

얼굴

“출판계 전체 이익 위해 행동하는 단체 지향”

한국출판인회의 초대회장 맡은 김언호씨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책을 읽지 않고는 개인이나 사회, 국가 모두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로서 출판인들이 능동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도시의 절대량을 서점을 통해 유통시키며 책의 문화를 일구는 출판사 대표 350여명이 구성된 한국출판인회의가 11월 2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초대 의장직을 맡은 김언호 회장(한길사 대표)은 “출판인회의는 출판문화운동과 출판문화산업운동을 두 축으로 출판계 전체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단체를 지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인회의는 출판문화와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출판문화의 위상 제고와 출판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출판문화 및 출판문화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 ▲출판유통의 발전 및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출판계 내실을 다질 사업으로 ▲출판 경영의 과학화 및 합리화를 위한 사업 ▲출판관련기관 및 단체의 협력과 연대강화 ▲출판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관사업 등을 펼친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판인 재교육 프로그램 ▲출판 아카데미 등의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역할분담하는 식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정책기획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을 위한 행동 주체로 활동한다.

“출판인은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들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모인 회원들은 각자 관심

있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김회장은 출판인의 위상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때임을 강조한다. 출판정책 개발부터 유통체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 출판물의 궁극적인 수혜자인 독자를 위한 대사회적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으로 출판인의 위상제고를 꾀할 작정이다.

“지식·정보화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책을 읽지 않고서는 개인·사회·국가 모두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출판인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출판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출판인 스스로 변할 것을 강조한다. 출판문화 발전이 다가오는 세기를 밝게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이를 기르는 사람이 바로 지식산업의 현장에서 서 있는 출판인이기 때문이다.

출판관련 단체와는 출판계 이익을 위해 적극 연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출판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출협'과 협력하여 출판계의 이익을 관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출판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출판계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결국 사회·문화적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출판은 문화인프라의 핵심입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이를 바로잡고, 바로 이끌 수 있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 오완진 기자